

정부, 4개 부처 연합해 ‘국방 AI 대전환’ 본격 시동

중기부·과기정통부·국방부·산업부
국방 AX 확산위해 부처간 협력
국방 AI 수요 발굴·실증 등 지원
AI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적용

정부가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을 기반으로 국방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AI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국방 분야에도 진입시켜 성장시키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와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계기로 국방·산업 분야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지휘통제, 무인·자율체계, 국방운영 자동화 등 국방 분야 전반



(왼쪽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에서 국방AX 확산을 위한 다부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의 AI 적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조·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자리를 마련했다.

업무 협력 내용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

의 AX 혁신 ▲국방 AI기술 수요 발굴, 실증 기회 제공 ▲국방 R&D인프라 활용 지원 ▲AI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AI 인재양성 ▲방산·제조분야 AI기술 국방 분야 적용 확대 ▲국방 AX 분야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부처는 AX 핵심

기술 확보부터 국방분야 실증, 산업 적용,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 분야 AX를 가속화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등 전 산업이 빠르게 AI 기반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AX는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과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 기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

민국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이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 국방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부는 AI, 제조, 국방의 강력한 삼각축을 기반으로 M.AX(Manufacturing AX)와 연계해 AI 중심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간에 더해 국방 부문에서도 AI 적용이 가속화되며, 세계적으로 AX 스타트업이 국방의 중요 주체로 급부상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국방 AX 수요와 스타트업 AX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민간·국방 양 축에서 활약할 수 있는 AX 혁신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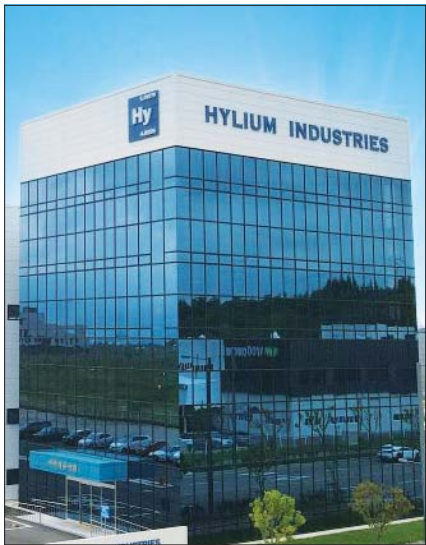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수전해 융합으로 글로벌 공략

中 귀푸칭닝, 하이리움에 100억대 투자
액화수소 생산·저장·유통 기술 제공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서 장비 공개

국내 수소산업을 리드하는 하이리움산업이 중국의 대표적인 수전해·수소장비 기업 귀푸칭닝(Jiangsu Guofu Hydrogen Energy Equipment Co., Ltd)과 ‘수소 동맹’을 맺고 글로벌 수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귀푸칭닝은 중국내 수소충전소 장비 시장에서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글로벌 확장 전략을 함께 펼친다. 하이리움산업은 향후 중국에 액화수소 탱크 제조 등을 위한 생산공장을 추진한다.

3일 하이리움산업에 따르면 두 회사



하이리움산업의 경기 평택 공장 전경.

간 연합은 액화수소와 수전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생산·저

장·유통 기술 전반과 액화수소드론의 파워팩 기술을 제공하고, 귀푸칭닝은 수전해 설비와 장비 공급, 그린수소 생산, 액화수소 드론의 중국 내 보급 등을 담당한다.

이에 앞서 귀푸칭닝은 지난 10월 약 100억원이 넘는 돈을 하이리움산업에 투자했다. 향후 양측은 조인트벤처(JV)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귀푸칭닝은 하이리움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액화수소 관련 원천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수소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노리는 중국의 핵심 기업이 한국의 차세대 수소 전문기업과 손잡은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수소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1.6% 가량 증가한 연간 5000만t

을 넘어섰다. 지난해 생산량은 3650만t으로 집계됐다.

하이리움산업은 국내에선 최초로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 기술을 국산화했다. 축적된 극저온 기술과 100여 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액화수소 저장탱크, 극저온 운송장비, 액화수소 충전 설비, 그리고 6시간 이상 장기 체공이 가능한 액화수소 드론 파워팩 등 미래 수소 활용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SK가스, 포스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이 전략적투자자(SI),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중공업이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하이리움산업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 기술혁신·유니콘 육성 본격화

중소 R&D 내년 2.2조로 대폭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579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연구개발(R&D)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도 힘쓴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200억원 늘어난 8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 1조1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6조52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15조

2488억원보다 1조2745억원(8.4%) 늘어난 것으로, 중기부 본예산이 16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대폭 축소됐다.

자연스레 중소기업 R&D 예산도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1조7701억원이었던 예산은 이듬해 1조3932억원으로 3769억원이나 감액됐다. 작년 1조5170억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1959억원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이를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

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는 올해보다 1660억원 늘어난 4021억원이 사용된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1670억91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2190억5400만원)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보다 늘어난 모태펀드 예산으로는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와 지역과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유니콘 브릿지는 내년 첫 선을 보인다.

혁신성이 검증된 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신규 확보한 320억원으로 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는 579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 주도로 전액 삭감이 추진됐지만 소상공인계의 강한 반대와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이 유지됐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홈케어 총국’ 본격 출범

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

청호나이스가 차별화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조직을 본격적으로 꾸렸다. 청호나이스는 경기 화성 청호인재개발원에서 ‘홈케어 총국’ 발대식을 개최하고 홈케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문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홈케어 총국’은 프리미엄 홈케어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인력을 기반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홈케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호나이스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전사적으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며 미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비건 매트리스 N32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

피부·공기질 안전성 입증

비건 매트리스 N32가 실내 공기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UL 그린가드(GREENGUARD)’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3일 시몬스에 따르면 N32는 지난 9월 독일의 저명한 피부과학 시험 연구기관인 더마테스트로부터 피부 안전성과 관련해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제품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UL 그린가드는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 ‘UL 솔루션즈’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부여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실내 공기질 안전 인증이다.

/김승호 기자